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06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40)

수줍은듯 숨어있는 미로속 오름

입력 : 2004. 07.30. 00:00:00

▲흙붉은오름에서 어후오름을 바라보면 마치 북녘을 향하여 '어후'하며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 막바지 마른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7일 불칸디오름(火長兀)과 어후오름을 도전했다. 테역장오리, 살쏜장오리 물장오리를 탐사한데 이어 이른바 '장오리(長兀)' 오름군 탐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이었다. 탐사팀은 물장올 기슭에서 출발하여 여러 갈래의 천미천 지류를 넘나들며 불칸디오름까지 3~4km 구간을 방향만 잡고 미로(迷路)를 헤쳐나갔다….○

◇불칸디오름

예전에 불탄 적이 있다고 해서 이름 붙혀진 오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한자로는 화장올(火長兀)이며, 불건대(佛建垈)라고 표기된 것도 있다. 이름 정도나 알려지고 있을 뿐, 오름의 유래에 대해 확실히 알거나 자주 오르는 사람도 거의 드물다. 국립공원내 오름이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장올 기슭을 지나 직선 방향으로 불칸디오름을 가려던 탐사팀은 여러 갈래의 천미천 지류를 넘나들면서 방향감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조릿대가 무성하고 단풍나무와 서어나무 고로쇠나무 등 교목이 밀집한 자연림의 연속이어서 지난주 탐사했던 테역장오리 살쏜장오리 물장오리 산체조차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한라일보

2시간 만에 전망이 트인 곳에 도착했다. 산중개야(山中開野)라고 할까. 이 지경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볼수 있는 '테역뿌리'지경으로 축구운동장 만한 들판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여기서 살쏜장오리 물장오리는 물론 불칸디오름의 산체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왜 불칸디오름이라고 했을까. 신영대 탐사위원은 오름의 산체를 보니 평평한 지세에 반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 반월형이었다면서 "주변에 물장올 테역장오리와 함께 풍수지리에 나오는 5성(五星)을 갖추기 위해 불칸디오름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풍수설로는 누대발복지지(累代發福之地)의 반월형(半月型)이라고 하는데 남서쪽 등성이에 와혈의 묘가 돌오름을 안산삼아 좌정해 있다. 산체는 남북으로 긴 등성마루를 이루고 있다. 촘촘한 조릿대 사이 붉은 흙이 곳곳에 선명하고, 희귀한 으름난초가 피어 있어 불칸디오름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게 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면 성판악 등산로 2.6k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50분정도 가면 기슭에 이른다.

◇어후오름

불칸디오름 동사면에서 어후오름을 마주 바라보면 오름산체가 뚜렷하다. 북사면아래 불칸디오름사이 깊이 15m의 측방침식계곡을 가진 오름이다. 계곡의 물 흐름에 의하여 심하게 침식받은 곳으로 이곳에는 왜구실살이, 잔고사리, 한라돌창포, 노루오줌, 돌회향, 은분취, 한라개승마, 공작고사리, 설앵초 등 매우 다양한 희귀 고산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대부분 소형의 착생식물들이다.

어후오름 역시 오름의 유래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어후는 '어울리다'라는 뜻이라고 해석되며 한자로 어후악(御後岳)이다. 표고는 1017m. 한라산 동쪽 오름 군에서 정상쪽을 향해 맨처음 표고가 1000m 넘는 오름이다. 흙붉은오름에서 바라본 어후오름은 북봉이 마치 동물 머리모양을, 남봉은 엉덩이모양을 하고 있다.

어후오름 서녘자락에서부터 사라오름~흙붉은오름 자락사이 해발 1,000~1,100m 지대에는 드넓은 벌판이 펼쳐지는데 40년대 후반 나비학자 석주명 선생은 그 당시 마소떼가 한가로이 풀뜯는 초원과 진달래 군락 등의 모습에 반해 '한라정원'이라고 찬탄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삼나무 조림으로 인해 옛 모습을 잃고 말았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다. 어후계곡이 깊은 낭떠러지여서 불칸디오름 남사면으로 내려와 협곡 윗쪽으로 우회하여 어후오름 자락에 접근했다.

능선을 따라 북봉 정상에 도달하니, 나무숲 사이로 살쏜장오리 테역장오리 물장오리 견월악 주변 오름군과 멀리 삼양 원당봉까지 볼 수 있어 숲속에 갇혔던 탐사팀에게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특별취재팀

한라일보

[전문가리포트]어후오름과 협곡의 형성

불칸디오름과 마찬가지로 어후오름에는 분화구 형태가 거의 사라지고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어 그 형성시기가 매우 오래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오름을 구성하는 송이에는 좁쌀 보다 큰 크기의 사장석(흰색), 휘석(검은색), 반투명한 감람석(녹회색~갈색) 광물이 많이 들어있다. 불칸디오름에는 휘석 광물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있고 어후오름에는 사장석 광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이처럼 구성광물의 조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인접하고 모양과 규모가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마그마에 의해 동시에 형성된 오름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어후오름의 북측사면에 접하여 천미천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천미천은 그 양안이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깊은 협곡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이 협곡은 백록담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형성된 열곡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현원학, 2004). 협곡이 형성된 이유와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스트롬볼리안 분화에 의해 어후오름이 형성되었으며, 어후오름 화산활동이 끝난 후 종류가 다른 화산암과 퇴적층이 오름 주변을 피복하였다. 이후 백록담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이전부터 존재한 지구조선중의 하나가 어후오름 북쪽 사면에 걸쳐 지하에서 약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하의 약대 상부에 상대적으로 파괴되기 쉬운 송이층이 분포한 부분은 쉽게 침식되어 지금의 협곡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어후오름이 형성된 초기에는 지금의 협곡이 형성된 지역까지 송이층이 분포하였으며, 협곡의 형성과 함께 어후오름 북쪽 사면중의 많은 부분이 침식되어 사라졌고 이러한 과정에 따라 오름 북쪽 사면의 경사가 매우 급하게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 지질분야)>

[전문가리포트]어둠 밝히는 반월형의 산체

불칸디 오름을 향해 진행된 탐사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노정이었다. 일정하지 않은 계곡과 우거진 숲을 따라 심연의 행진은 계속되는데 가슴을 덮을 만큼 빽빽이 들어선 조릿대 사이로 옮겨지는 발걸음은 끝없는 미로의 행진과 다름이 없다. 간혹 나뭇가지 사이로 어쩌다 보이는 파란 하늘은 희망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정작 산체의 본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불칸디오름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홀연 빗줄기에 한 생각 불러 일으킨다.

실핏줄처럼 나뉘고 합치는 천미천의 본류와 지류가 골짜기를 휘돌아 강한 수기를 자랑하면서 물장올에서 절정을 이루며 주변의 산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테역장올과 쌀손장올의 중간인 테역뿌리에서 바라보면 불칸디오름은 마치 토형의 가지런한 평지에 반달처럼 볼록하게 탐스러운 금형의 모습으로 등불처럼 밝은 기운을 뿜으며 화기(火氣)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불탄 적 있는데서 연유한 이름이라지만 어쩐지 설득력이 부족한 듯 하다.

한라일보

이곳은 지형적으로 물과 초목이 나름대로 구색을 잘 갖추고 있는데 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인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또한 지형을 유행하는 상호 기운의 유통을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보충하여 천지인의 조화를 유도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신화와 전설을 간직한 이 지역에 특히 무속적인 방법으로 우주와의 합일을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물장올이 수기(水氣)의 표출이라면 불칸디오름은 화기(火氣)의 대표적 표출이었을 것이다. 불과 물은 상호 대립과 상생을 교환하면서 서로 없어서는 안될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의 물음이며 생명의 기본인 것이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 풍수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라일보